



임동현이 15일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벌어진 세계 양궁 선수권대회 남자 개인 결승전에서 시위를 당기고 있다. /AFP=연합뉴스

## ‘막내’ 임동현 2관왕

러시아 선수 상대 대역전극  
세계양궁선수권 남자 개인

한국 양궁 남자대표팀 막내 임동현(21, 한국체대)이 제44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5점 뒤지던 승부를 뒤집는 대역전극을 펼치며 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박성현(24·전북도청)은 은메달을 땀다. 세계랭킹 3위 임동현은 15일 독일 라이프치히 페스트비제양궁장에서 벌어진 대회 마지막 날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세계랭킹 1위 발지니마 치렘필로프(32·러시아)를 110-108(120점 만점)로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한국 남자양궁은 2005년 정재현(33·서울시청)에 이어 세계선수권 개인전 2연패와 함께 1981년 첫 출전 이래 14차례 개인

전 가운데 일곱 번째 금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또 한국은 이번 대회 리커브와 컴파운드 부문에 걸린 남녀 개인·단체전 금메달 8개 중 전날 남녀 단체전 금메달 2개와 이날 남자 개인전 금메달 등 3개와 박성현의 은메달을 보태 이탈리아(금 2, 은 1)를 제치고 대회 종합 1위를 차지했다. 박성현은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세계랭킹 8위 나탈리아 발리바(38·이탈리아)에게 106-108(120점 만점) 2점차로 역전패,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2001년 베이징 세계선수권대회와 2004년 아테네올림픽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박성현은 이날 2연전까지 53-52로 앞서갔지만 3연전에 발리바가 10-10-9점을 쏘는 동안 9-8-9점에 그치며 2점차(79-81) 역전을 허용, 결국 106-108 2점차로 무릎을 꿇었다. 동메달은 나탈리아 에르디냐에바(19·러시아).



▲2007 프로야구 올스타전(17:10·KBC)  
▲2007 일본프로야구(주니치 : 야쿠르트)(17:50·SBS스포츠)  
▲맨체스터Utd 아시아투어(우라와레즈 : 맨체스터Utd)(19:00·MBC ESPN)  
▲피스컵 2007(성남 : 치바스)(19:50·SBS스포츠)  
▲2007 아시안컵 축구대회(한국 : 인도네시아)(19:30·MBC·SBS스포츠·Xports)  
▲2007 메이저리그 (김병현 선발경기) <세인트루이스 : 플로리다>(07:55·Xports)  
▲제29회 대붕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전(13:00·KBS N SPORTS)  
▲올림픽제기년 2007 국제여자핸드볼(한국 : 우크라이나)(14:10·KBS1)

###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7월 2일 첫진도 개강

핵심요약정리 + 단원문제풀이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인출신 143명 합격!

본원 ☎ 227-8003 (7도청 앞 전일빌딩 9층)  
첨단점 ☎ 971-0002 (빅마트 장덕점 옆 광주은행 4F)

### 국비지원수강생모집

최고의 교수진 직강!! 실무중심의 취업이 가장 빠른 교육

####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모집과정  
▶공인중개사 12개월~1년 시험일: 10월28일  
▶주택관리사 12개월~1년 시험일: 10월27일  
▶주택관리사 2차(회계회계) 주말반토일 시험일: 10월21일

●모집대상  
▶훈련도중 또는 훈련 종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할 예정인 분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회사에 근무 중 이직 분 40세 이상 이직 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분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기타사항  
▶고용보험가입 직장인 선착순 정원제 모집  
▶수료후 100~80% 환급  
▶접수  
▶수강장차 : 훈련성당→훈련수강신청서 작성→훈련기관에 제출→수강

●접수  
▶수강장차 : 훈련성당→훈련수강신청서 작성→훈련기관에 제출→수강

●수업시간  
▶월요일 19:00~21:00(기초) ▶화요일 19:00~21:00(기초)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강습서원 ☎224-4580, 232-1088

특보:세무공무원 3000명 모집, 합격의 절호의 기회!!

## 7·9 공무원 대특강

일세무직 2700명 공채 2차 내년 초 1400명 (사상초우)

7·9급 일반행정직 216명 10월 13일 시험 개강 8월 1일

남 9급 교육행정직 000명 올해반기 시험 주야반모집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www.mdgoel.co.kr ☎ 222-4560

## 79급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www.hanbitgosi.co.kr

### 79급 공무원

가산직종형성, 교육행정,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사법부처, 군무원, 교정직, 농림직, 전선직, 보건직, 출판관리직, 기술직

79급 공무원 특수반 첫진도 (10월)

월세금액 3,000여명 (10월)

전남교육행정 문제풀이 (10월)

한빛공무원학원 개강 8월 1일

전남대 후문 북구청 건너편 ☎ 234-0234 (전라북도 전주시)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시안컵 조별리그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패한 한국팀 선수들이 고개를 떨군 채 경기장을 나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베어백호 ‘바레인 충격’

1-2 역전패...조 최하위 수도

47년 만에 아시아 정상에 도전하는 베어백호가 중동의 북방 바레인에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해 치욕의 날을 맞았다. 한국은 자력으로 8강 진출을 할 수 없는 베팅 끝 위기에 몰렸다. 월드컵축구 4강의 자존심을 땅에 떨어뜨린 굴욕적인 패배 앞에 축구 팬들은 할 말을 잃었다. 펠 베어백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5일 저녁(이하 한국 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글로라 봉카르노 경기장에서 열린 2007 아시안컵축구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전반 4분 김두현

의 선제골로 앞서가다 전반 43분 살만 이사에게 동점골을 내주고 후반 40분 이스마일 압둘라티프에게 통탄의 역전골을 허용해 1-2로 역전패했다. 무엇보다 문제는 해답이 보이지 않는 수비조지력이다. 유난히 수비라인에서 ‘헛패스’와 백패스를 남발했고, 결국 김정우(나고야)의 백패스가 중도에서 차단돼 역전골의 발미를 내줬다. 더불어 편도선열에 따른 고열로 정상 컨디션이 아닌 이천수(울산)를 고전스럽게 그라운드로 내보내는 등 선수들의 무거운 몸 상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준 코칭스태프의 치밀한 선수단 관리 역시 아쉬운 대목이다.

■ 한국 8강 진출 가능성은?

## 자력으로 불가능

印尼 꼭 꺾어 놓고 행운 바랄 수밖에

한국 축구대표팀은 15일 바레인과의 대회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1-2로 역전패, 1무1패(승점 1)로 조 최하위에 처했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1승1무(3득점 2실점)로 1위, 인도네시아와 바레인이 각각 1승1패(3득점 3실점)로 동률을 이뤘지만 승점이 같을 경우 해당 팀 간 전적을 먼저 따지는 대회 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2위에 올랐다. 공동최고국 인도네시아는 조별리그 1차전에서 바레인을 2-1로 꺾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조별리그에서 승점이 같으면 해당 팀 간 승점-골득실-다득점을 우선 따진 뒤 조별리그 전체 경기에서 골득실-다득점순으로 순위를 가른다. 그리고 사우디가 바레인을 잡아준다면 한국은 사우디(2승1무)에 이어 조 2위로 8강에 오를 수 있다. 하지만 비기기만 해도 조 1위가 되는 사우디가 승리를 위해 사활을 걸지는 미지수다.

시우디아라비아	바레인	한국	인도네시아	8강 진출여부
승	승	승	승	진출(조 2위)
승	승	승	패	사우디와 골득실 비교, 진출 또는 좌절
승	승	패	승	좌절 (승자승 원칙)
승	승	무승부	승	좌절
승	승	무승부	무승부	좌절

## 브라질 우승

아르헨티나 3-0 완승  
코파아메리카 축구

브라질이 화려한 삼바댄스를 펼쳐보이며 남미 축구 챔피언에 올랐다. (사건) 카를루스 등 감독이 이끄는 브라질 축구대표팀은 16일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 호 세 파렌조 로메로 경기장에서 열린 남미 대륙선수권대회 ‘코파 아메리카 2007’ 결승에서 라이벌 아르헨티나에 골 세례를 퍼부어 3-0으로 대승, 우승컵을 포용했다. ‘클래식 파이널’로 불린 남미 축구 양대산맥의 대결은 예상을 뒤집는 삼바호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브라질은 1916년부터 시작된 코파 아메리카에서 통산 8번째 우승을 차지했고 2004년 페루대회 결승에서 승부차기 끝에 아르헨티나를 꺾은 데 이어 대회를 두 번 연속 제패했다.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와 통산 전적에서 36승22무33패로 앞섰다. 코파 아메리카 14회 우승팀 아르헨티나는 준결승까지 5전 전승에 16골을 몰아치는 화력을 자랑했지만 삼바군단의 현란한 개인기와 가공할 결정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간판 공격수 호나우지뉴와 카카가 빠진 브라질은 대회 첫 경기에서 북중미 초청팀 멕시코에 0-2로 참패하는 망신을 당했지만 결승전 완승으로 수모를 씻어냈다. 브라질은 호비뉴, 바그너 로베를 전방에 놓고 즐리우 발티스타가 2선에서 기회를 노렸고, 아르헨티나는 리오넬 메시와 카를로스 테베스, 후안 로만 리퀘레모 이어진 삼각편대로 공격진을 가동했지만 역부족이었다.